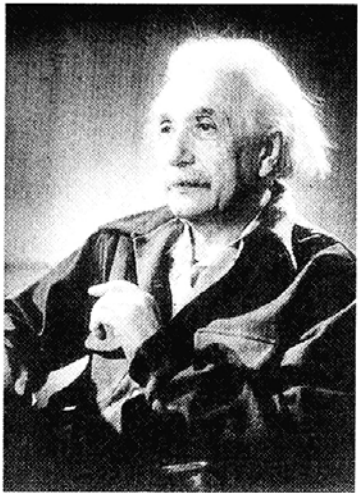


아인슈타인이 알아야 할 원효스님의 대승기신론

소광섭교수 '물리학과...' 펴내

"가까운 미래엔 물리학=심리학"



소광섭 교수는 <대승기신론>에서 환계에 부딪힌 물리학의 대안을 찾는다. 사진은 원효대사 진영(위)·아인슈타인

자연현상의 실재성을 전제하고 그 궁극의 법칙을 추구하는 물리학과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를 주장하는 불교의 유심적 세계관은 서로 화해와 일치가 가능한 것일까?

소광섭 교수(서울대)는 <물리학과 대승기신론>에서 "대승기신론이 담고 있는 심리적 관찰자에 관한 통찰 속에서 환계에 부딪힌 물리학의 대안을 발견할 수 있다"며 "대승기신론" 주석에 있어서 단연 독보적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원효는 종관 유식의 통일적 회통을 실현하고 있는데 현대 물리학의 언어도 이러한 회통의 언어인 <대승기신론>의 언어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자기 자신을 보는 것과 다름없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철저히 안다면 모든 대상에 대하여 다 알게 된다'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현대 물리학의 한계를 이겨내갈 대안으로 소 교수가 제시하고 있는 것은 <대승기신론>이다. 그 가운데서 자연현상과 인식에 관한 문제를 주로 다루는 '심생멸론'을 중시한다. '심생멸론'에서 인식은 주체와 대상의 분리를 전제로 한다. '한 마음(一心)'은 이러한 분리 이전의 절대 공(空)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를 언어나 형상으로 나타낼 수도 언어로 알 수도 없다. 불교와 기독교 언어의 상호 이해를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소 교수는 "한 마음의 본질적 측면을 인격화하면 하나님(眞如)이라 하겠는데, 이 하나님 지리는 맑은 마음과 같이 공하다. 여기에 어둠(無明)의 사탄이 욕망의 바람을 불어 일으켜 나(妄心)가 생기면서 대응하여 현상계(妄境界)가 일어난다. 그러나 이 전체는 원래 하나이며 각 요소는 한 마음의 갈라 본 양상일 뿐 각각의 요소가 실재인 것은 아니다"며 기신론의 주장을 기독교적인 언어로 풀어 해석하고 있다.

소광섭 교수는 "원효는 물질의 근본을 알기 위해 물질을 계속 쪼개 나가는 일은 아무리 오래 한들 자연의 궁극적 원리에 닿을 수 없고, 결국 마음밖에 따로 있는 것이 없음을 인정한다"며 "20세기 말에 소립자 물리학이 부딪힌 근본적 장벽은 물리학과 심리학의 통일 시기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예고해 주는 것인지도 모른다"라고 물리학과 심리학의 통일을 조심스럽게 전망한다. 김지연 기자 (jygang@buddhopia.com)

스위스·일본서 국제불교학술회 잇달아 열린다

국제적인 불교학술대회가 스위스와 일본에서 연이어 열려 국제불교 교류의 장이 될 전망이다. 국제불교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uddhist Studies, IABS)는 23일부터 28일까지 스위스 로잔대학에서 제12회 세계불교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아비다르마(대전), 남·동남아시아의 사회와 불교(곰브리히), 불교와 브라미니즘(하라), 불교와 다오이즘(범바허), 서구의 불교(바우만), 불교 논리학:예제의 기능(카슈라, 스테인펠너), 초기불전의 새로운 발견(살로몬, 콕스), 불교 심리학(백펠러), 초기대승불교와 대승경전(해리슨, 실크), 불교 연구에 근거를 둔 전자원전·인터넷·컴퓨터(몰러), 17세기 이후의 일본불교(모르), 한국불교(윌러), 불교에서의 자연의 가치(슈미츨렌), 율연구(프리비쉬) 등 23개의 분과가 개설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현각스님(동국대)이 '깨달음에 대한 선적일고'를, 해주스님(동국대)이 '일승법계도의 저자에 대해서'를, 현원스님(가산불교문화연구원 기획실장)이 '한국 불교 유물의 역사적 의미'를 발표한다. 이어 9월9일~10일에는 일본인도학불교학회가 주최하는 제50회 학술대회가 일본 경도시 용국대학에서 열린다. 전체 10부로 구분돼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한국의 불교의 예수재에 관해'(반산스님), '원효의 화쟁원리·화엄일심에 관해'(해주스님), '사무량수에 대하여'(김정중), '밀교승 예초의 제교철'(이정수) 등이 발표된다.

용성스님·이능화 박사가 이등박문에 보낸 서한 '공개'

국사편찬위 日국회자료실서 자료수집

구한말 및 일제시기에 조선인 인사가 일본의 정·관계 등 유력자들에게 보낸 서한이 수집 공개됐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최근 일본국립 국사자료실에서 이능화 박사가 조선침략의 수뇌인 이등박문(伊藤博文)에게 보낸 서한 등 300여통에 이르는 서한자료들을 수집했다. 이 서한 가운데는 백용성스님과 이희회스님이 경성일보 사장이자 일제시기 총독부 뿐만 아니라 국내 민족운동진영에도 막후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부총가(阿部充家)에게 보낸 서한과 불교에 귀의한 후 영친왕의 보모를 맡았던 최승실당이 조선총독 재동실(齋藤實)에게 보낸 서한 등이 포함돼 있다. <불교계의 항일운동>이란 단행본을 준비하고 있는 해동스님은 "일제시대에 있었던 항일 독립 운동 가운데 의병활동과 국제보상운동에 있어 불교계의 역할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며 "이번에 수집된 이런 서한들까지 포함해서 일제시대 불교계의 활동상황과 내용에 대한 보다 조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지형 가람 7세기 이후 발달"

장헌덕씨 '한·중 고대사원건축 비교연구'

한국과 중국의 고대 사원건축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비교 분석한 논문이 나와 화제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장헌덕(張憲德) 연구원은 중국 청화대에서 받은 99학년도 공학박사학위논문 '중화사찰전당목결구 비교연구(中韓寺刹殿堂木結構比較研究)-10세기부터 16세기까지'에서 "한국과 중국의 가람은 '평지형(平地型) 가람'에서 '구릉형(丘陵型)가람'으로, 7세기 선종 홍기이후에는 '산지형(山地型)가람'으로

변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에서 평지형 가람을 대표하는 사찰은 낙양 영녕사, 서안 자은사 등이고 한국의 대표적인 평지 가람은 부여 정림사, 경주 총흥사 등이다. 평지형 가람은 거대한 탑이 가람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 특징으로 이러한 가람양식은 10세기 이후까지 이어진다. 구릉형 가람은 중국 남방 사원에서 많이 발견된다. 장 연구원은 구릉형 가람이 우리 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통일신라 이후라고 지적했다. 같은사 불국사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양식이라는 것.

7세기 이후에는 경전과 참선 등을 통한 수행을 강조하는 화엄종과 선종의 흥기로 인해 사찰들이 수행중심의 '산지(山地)가람'으로 바뀐다. 중국 오대산 화엄도량, 남송 때 세워진 오산대찰(五山大刹), 한국 부석사 등이 산지 가람을 대표하는 사찰들이다. 장 연구원은 한국과 중국 사찰의 차이점으로 쌍탑(雙塔)의 유무를 꼽는다. 중국에 현존하는 쌍탑은 대개 10세기경 유물인데 비해 한국 쌍탑은 7세기 전후에 나타나는 것이 다르다. 중국 사찰들은 종루와 경루가 있고 한국 사찰들은 종루와 경루가 점차 소멸되고 있는 것도 차이점으로 밝혔다.

철야옹맹정진 수련회

기본 수행법 교육(토요일 저녁 7시~9시)
호흡에 맞춰 절하는 법 : 절대 숨차지 않고 힘껏대지 않으며 기계처럼 자동으로 숫자 헤아려지고 마음이 일체 동요되지 않는 완벽하게 절하는 비법
염불 금강경 통경하는 법 : 수행시 일으켜 숨을 들이쉬면 목에 전기가 빠져나가 피곤하고 졸리고 지치고 침은 마르며 목이 아프고 번뇌망상은 들끓어 삼매에서 멀어진다. 지성의 운운대로 해야 단전호흡이 되고 침은 저절로 넘어가며 중단 없이 한없이 흘러 큰 소리로 염불해도 목 아프거나 쉬지 않고 한차례 박력있게 신명나고 자신있게 염장을 조복하는 상근기 되는 수행법
장폐합장자세, 좌선자세, 행선, 외선 수행시 지동 단전호흡되는 법.
철야정진 (토요일 10시~일요일 오전 10시)
한글금강경 불독2회, 석가모니불 염불 정진, 도인체조건강법, 108배2회, 외선호흡법, 수행상당 점점, 축원 기도 7회
◆ 낙낙한 특장, 새만도, 예약수련 30명, 수련비 무료 출가예정자 수행체력, 특별소원취취기도 수행자 업장소멸을맹정진 수행자를 모집한다.
◆ 철저한 수행교육후 수시 수행점진, 1일 2시간씩 4회 수행. 매주 토요일 철야정진 1일 2시, 식후 30분 행선, 운력(1시간 일주일 3만원, 보름 7만원, 한달 15만원, 백일 50만원)
◆ 철야정진 동참자중 수행을 올곧게 잘하시는 고행력의 거사님들의 참여가 70%넘고 부부가족단위 수행자가 많습니다.
◆ 차를 임박에서 다량의 약수가 나옴 (일년 두어도 이끼가 끼지 않는 특급수)
아름다운 소리상 법왕정사 수행원 물빛고을 소공강 육감지혜보궁, 두라禪院, 불교도서관, 법왕장학회 경기도 양평군 단원면 석산리(인이피 마을) 소리산 참선캠프
수련전문상담전화 (0338)771-7745(오후 1시~8시)
금강산저택 수련소 소리산 16만평의 영지에 위치한 청정한 수행전문도량임

새로운 형태의 황토방 탄생!

이글루형 황토방 규격
표준형 : 높이 1.9m 면적 11.3㎡

-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를 접목시킨 새로운 형태의 황토방
- 황토방을 이글루형으로 시공함으로써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내부공간
- 전통방식의 구들시공으로 황토의 장점을 최대화
- 정신수양 및 건강을 위한 최적의 황토방

대륙건축 황토방 사업부

대표 이성우
경기도 용인시 마평동 530-3
TEL : 0335-336-6563
FAX : 0335-338-8923
H.P : 011-9680-5055

삼광법사(三廣法師) 맹이청은 권 포교원을 개원하여

모든 부처님들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삼보전에 귀의하고 싶은 분 *불사에 도움을 주고 싶은분
*불사에 동참하고 싶은 분 *불교 연구를 할려고 하는 분

삼광법사 맹이청은...

- 오랫동안 역학을 연구하다가 만유음양(萬類陰陽)을 발견하여 1979~1983년까지 종로6가 백제약국 뒤 금용빌딩에서 1984년~1987년까지 여의도 제일빌딩에서 "동서양 자연철학 연구조사조절연구원"을 개설 세계최초로 "아들" "딸"을 임의로 임신가능함을 연구발표해 세인의 화제거리가 된 바 있습니다.
- 사임문제, 진학문제, 결혼문제, 궁합, 택일, 이사, 결혼, 복록, 신상아 작명, 개명, 해명, 평가 등 인생문제를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 특히 가족계획을 꼭 하고 싶거나 실패하신 분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무료결혼상담소 개원

*초혼·재혼으로 고민하시는 분 또는 자녀들의 '혼사'문제로 걱정하시는 부모님을 위하여 평생을 배필을 찾아가기 위하여 무료로 상담소를 개원하였습니다.
*결혼은 반드시 이합, 3합, 상,중,하,해를 가려 이루어져야 합니다.
음양철학, 점성학, 명역학, 서세(서도)및 불교를 연구하고 싶은 분께가 또는 불모살님을 맺분 모시고 싶습니다.

☎ 844-2124, 834-9491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3동 713번지 대광빌딩 4층
불심도원 (약사사)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기를 발하는 신비한 반야심경

한국신기록을 획득한 운장법사의 초능력적인 신비의 '운인(佛字)체' 최초로 공개

한국 수백과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 신기·영기를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 그림, 龍자그림 (수백과 처단) 특별보시!

◎ 주문이 많으므로 단체주문은 사양합니다. (1가지 1부씩)

◀ 운인(佛字)체

생명의 전화 : (주) (02)2242-0331, 2242-0255
(야) 2216-0307, 011-471-1996

●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지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敎藝術文化院 韓國佛敎禪墨家協會

Welcome to MWO-Bangladesh Home page
(Mahamandali Welfare Organization, Bangladesh)

Your visitor number is 00615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마하만달

최근 오픈... '방글라데시 불교' 소개 불교문인 40여명의 작품 읽을거리

빈곤의 땅 방글라데시. 이곳에서의 불교는 어떤 모습일까. 네티즌 가운데 이것을 궁금하게 생각하는 불자가 있다면, 인터넷 사이트 '마하만달(Mahamandal)'을 방문하면 된다.

올 7월초 오픈한 마하만달은 가상공간에서 방글라데시 불교계를 대표하는 유일한 사이트이지만, 총인구 1억2천여명중 불교인구가 1.3%에 불과한 이곳에서 불교사이트를 개설한 자체는 대단한 일이다.

마하만달은 방글라데시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인 노인·어린이·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스님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상가리 시라칸가스님이 1986년 세운 사회복지재단이다.

이후 불교도청년우의회(WFBY)와 참여불교협의회(INEB) 등 국제불교단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90년대 이후 방글라데시 종교계에서 가장 유력한 복지단체로 떠올랐다.

이 사이트에서는 △불교사 △불교조각 △사원건축 △불교문학 및 출판 △불교교단 △기타 불교단체 등 방글라데시불교와 관련해 모든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방글라데시의 '불교조각'은 인도 아쇼카왕의 통치권이 미처한 북부지역 즉 '벵갈'에 집중되어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가원전 3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마하스탄'을 볼 수 있는데, 이 불상은 방글라데시에서 최초의 불상으로 꼽히고 있다.

또 이 지역에서 7세기부터 12세기까지의 불상이 꾸준히 발굴되고 있으며, 상좌부·대승·티벳불교의 불상들이 뒤섞여 발견되고 있다는게 특징이다.

'불교문학 및 출판'에는 방글라데시 스님과 불자들이 가장 애송하고 있는 시(詩) '차르야기티(Charyagiti)'의 정보를 제공한다. 총 46행으로 구성된 이 시는 프라지나(Prajna·태양)와 아드반야(Advaya·달)의 이미지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행을 설명하고 있다.

이 시는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인도 초기불교의 영향을 받은 시로 알려졌으나, 프로보드(인도) 박사가 1938년 티벳불교의 경전에서 같은 내용의 시를 발견, 새롭게 연구되고 있다.

또 이 메뉴에서는 아티사 디관카라(980~1053) 탐 모흔 레이(1772~1833) 등 방글라데시의 대표적인 불교문인 40여명을 소개하고, 아티사 디관카라의 작품 <벵갈의 눈>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다카지방에 있는 방글라데시국립박물관에 소장된 불교 유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제공한다.

방글라데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교단체인 '방글라데시 불교연합' '팔비트야 상가' '청년 불교연맹' 등 7개 단체를 소개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opia.com)

△http://www.mwobd.org/